

진로미결정과 애착, 자기대상욕구의 관계*

김 미 자[†]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하인즈 코헷의 자기대상욕구와 애착,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대학생 305명이었으며 친밀관계 경험척도, 한국형 자기대상욕구 질문지, 및 직업미결정 척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애착과 자기대상욕구, 진로미결정은 서로 상관이 있었다. 특히 애착 불안은 애착 회피보다 자기대상욕구나 진로미결정과 더 큰 상관을 보였다. 또 자기대상회피는 진로미결정의 거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대상갈망은 그 하위요인들이 진로미결정의 소수의 하위요인들과만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대상회피와 자기대상갈망은 모두 진로미결정 요인 중 우유부단과 상관이 있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계의 방향성을 검증해본 결과 자기대상회피는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상담에의 함의, 그리고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을 살펴보았다.

주요어 : 진로미결정, 애착, 자기대상욕구, 자기대상갈망, 자기대상회피

* 본 논문은 2008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미자,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Tel : 02-2164-4641, E-mail : jamicome999@empal.com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대학생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 혹은 청년 전기에 속하며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평생에 걸친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실행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Havighurst, 1968). 따라서 대학 시기 진로 선택과 준비는 개인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학 전에 자신과 전공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진지한 성찰이 없이 단지 점수에 따라 입학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부제로 인해 대학 입학 후에도 진로와 관련된 전공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대학 상담 장면에서 진로문제는 내담자의 주요 호소문제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가 많다(오충광, 2008)고 보고되고 있어 진로미결정에 대한 연구와 이해 및 적절한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진로미결정이란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며 진로상담 연구의 주된 연구주제의 하나이다.

그동안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이 연구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애착과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애착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특정인에 대한 정서적 유대이며 애착관계는 근접성을 유지하려하고 이별을 고통스러워하며 재회 시 기뻐하고 상실을 슬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른 친밀한 관계와 구분되는 점은 애착인물을 세계를 탐색하기 위한 안전기지로 활용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안전한

도피처로 이용한다는 점이다(Ainsworth, 1989; Bowlby, 1969). 생후 1년 동안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수많은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영아는 애착과 관련된 상호작용의 정신적 표상 즉 내적작동모형(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된다. 이 모형은 '애착 인물과의 상이한 유형의 상호작용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며 애착과 관련된 경험이나 사고 감정을 어떻게 조직하고 접근 하는가'에 대한 규칙체계이다. 이는 최초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전 생애동안 지속되며 인간관계의 원형이 된다. 그러나 변화 불가능하게 고착 혹은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추후 경험의 영향으로 변화될 수도 있으며 발달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으로 표현된다(Bowlby, 1979). 또 기본적인 가치나 성격에 통합되어져서 친밀한 관계 이외의 맥락에서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낯설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상호작용에 따른 정서경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holes & Simpson, 2004).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가용성과 반응성이 중요한데 부모의 민감한 반응성은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뿐 아니라 자기탐색을 통한 자기 통합감과 자기 가치감의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황혜자, 조수진, 2006). 또 안정애착 혹은 그것의 내적작동모형으로부터 유래한 안전감이 진로발달에 필수적인 환경에 대한 적극적 탐색과 숙달, 사회적 지적 유능감의 발달을 장려한다(Kenny, 1994; Lopez, 1992). 따라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 진로탐색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며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으며 이는 애착과 진로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어진다. 이들에 따르면 애착이 불안정할 경우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역기

능적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최현영, 2005), 진로태도 성숙수준이 낮아서(임진, 2003)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 진로포부가 크고 진로결정수준이 높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이 컸다(O'Brien, Friedmana, Tiptonb, & Linnc, 2000; Vignoli, Croity-Belz, Chapeland, Fillipis, & Garcia, 2005). 그러나 애착이 진로탐색과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애착과 진로결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설명력이 약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최동선, 2003; 최옥현, 2006). 이에 몇몇 연구에서는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다양한 성격 변인들에 의한 매개 효과를 보려고 시도하였는데, 매개변인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성격변인은 진로정체감 혹은 자아정체감이다.

에릭슨(Erikson, 1968)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이란 의식적으로 경험된 자기감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자기에 대한 통합된 느낌과 연속성의 느낌을 부여한다. 그런데 진로정체감은 직업과 관련된 태도, 가치, 흥미, 욕구와 능력에 관한 자기지각으로 정의되므로 진로와 관련된 자아정체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진로 발달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청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다. 청년들은 직업 선택을 통해 자아정체성에 결정적인 발달을 이루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며, 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정체감 형성 및 진로 선택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이며 해결해야 할 청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

다. 그런데 확고한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요구되며(Lopez & Andrews, 1987), 이러한 탐색과 분리개별화를 위해서는 안정감과 안전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안정된 애착경험과 이에 따른 안정애착의 내적작동모형의 형성이 정체감 형성에 선행되어야 하리라 여겨진다. 이는 진로정체감이나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을 완전 혹은 부분 매개한다는 선행연구들(김영근, 2005; 김은진, 2001; 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에 의해 뒷받침되어지고 있다. 또 최근 연구들(박정희, 2007; 조진숙, 2004)은 자아정체감을 진로미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강한 정체감을 지녔다는 것은 이전 단계 동안 형성된 다양한 측면의 자기에 관한 인식들을 합병하여 통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의 결과는 개인적 연속성 혹은 내적 일치감이며 이는 응집적인 자기를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이와 달리 응집적인 자기를 지니지 못할 때 자기실패, 자기 가치감, 안정감의 문제가 대두되며 존재의 공허감, 방향성 상실, 의미상실로 괴로워하게 된다. 이는 자기의 문제가 진로미결정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중점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 논의의 중심에 하인즈 코헷(Kohut H.)의 자기심리학이 있다.

코헷(1971, 1977)에 의하면 자기는 한 개인의 심리적 존재의 정수이며 자신과 세계에 대한 감각, 감정, 사고 및 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는 성격장애 뿐 아니라 성숙하고 건강한 성격의 발달을 설명해주는 심리적 힘이 자 기본적 자기애적 혹은 자기표현적 욕구

이며 기능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그는 자기의 응집성과 창의성, 자기실현을 매우 강조 하였으며 생애 시초부터 작동하는 자기에적 발달 노선을 가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생애 초기의 유아는 무력한 존재로 안정된 응집적 자기의 발달을 위해서는 자기의 응집성, 항상성, 탄력성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타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유아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대상을 자기고양 혹은 자기유지욕구의 충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며 독립적이고 별개의 실체가 아닌 자기의 일부로 여긴다. 코헛은 이처럼 자기가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대신 수행해주는 자신의 일부와 같은 대상을 자기대상(selfobject)이라 칭하고 건강한 자기에의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기대상의 기능으로 '반영(mirroring), 이상화(idealization)의 허용, 제2의 나(alter-ego)'를 들었으며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이들에 대한 욕구들을 지닌다고 하였다. 반영 욕구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존재로 보이고 자신의 성취를 통해 존경받고 찬사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일컫는다. 이상화욕구란 주요 타자에 대한 이상화된 심상-지혜, 친절, 방대한 지식, 지치지 않는 체력, 정서를 달래주고 안정시키며 정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을 소유한 완벽한 타자-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초래된 이상화된 자기대상과 융합되고픈 욕구를 일컫는다. 이때 이상화된 부모상은 정서나 다른 자극으로부터 영아의 미성숙한 정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제2의 나 욕구란 타인과 유사하다고 느끼고 관계 속에 포함되어있다고 싶은 욕구를 뜻한다. 응집력 있는 자기는 이 기능들과 연결된 세 가지 발달 축-거대성, 이상화, 제2의 나-에서의 정상적인 발달의 결과이며 자기대상의

기능이 내재화되었음을 뜻한다. 이 경우 안정된 자존감과 건강한 포부, 현실적 목표나 이상을 지니고 이를 실현할 재능과 기술을 개발해나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응집적인 자기가 형성되었다고 하여서 자기대상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자기대상욕구는 평생을 통해 지속된다. 다만 응집적인 자기가 형성되면 자기대상을 보다 성숙한 형태로 활용하며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소망 혹은 욕구들이 만성적으로 혹은 외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 변형적 내면화 과정은 붕괴되며 응집적 자기의 발달이 저해되고 병리적 자기가 출현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대상갈망 혹은 회피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대상갈망이란 자기대상 경험에 대한 만성적이고 원시적인 기아에 허덕이면서 이의 충족을 위한 지속적 탐색 행동을 하게 되는 마음 상태 혹은 성격 특성을 뜻한다. 그리고 자기대상회피란 자기대상 경험에 대한 방어적 회피 및 자기대상욕구를 부정하게 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코헛에 따르면 자기대상욕구에 대한 어떤 사람의 정향(orientation)은 성인기의 성격 기능의 주요한 요인이다. 한 편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성숙한 자기대상욕구를 지니고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 수준이 비교적 안정된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강력하고 원시적인 자기대상욕구를 지니거나 혹은 이를 회피, 부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자기대상욕구의 적절한 충족과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건강한 포부와 목표나 이상의 습득 및 이를 실현할 재능과 기술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후기 청소년기 혹은 청년전기, 중년기, 혹은 은퇴기와 같은 삶의 전환기나 발달의 일정 시점, 즉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조절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기의 응집성이 부침을 겪게 되며 자기대상욕구가 커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자기대상욕구가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대학생 시기는 삶의 커다란 전환기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며, 진로문제는 포부를 지니고 목표나 이상을 습득하며 이를 실현할 재능과 기술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진로정체감이나 자아정체감은 응집적 자기의 형성을 요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자기대상욕구를 부정하거나 회피할 경우 적극적 진로탐색과 준비행동에 지장을 받아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커질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자기대상회피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없으나 거대성 축과 이상화 축의 미숙한 형태인 우울감과 목표불안정성이 진로확신 및 진로계획과 부적 상관을 지닌다는 연구(Robbins & Patton, 1985), 부적응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상관(김은석, 2006), 자존감과 진로미결정의 상관(이항심, 2007; Saka & Gati, 2007)을 보여주는 연구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뒷받침되어진다.

다른 한 편 자기대상욕구에 대한 코헛의 설명은 자기대상욕구가 애착과도 관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코헛에 의하면 응집적 자기의 발달은 주요 타자의 가용성과 반응성에 달려있으며 이는 그가 심리적 괴로움을 조절하기 위해 도움을 구할 때 특히 필요하다. 그런데 애착이론가들 역시 이러한 가용성과 반응성이 유아기 영아의 안정 애착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부모의 반응성이 자기통합감과 자기가치감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인기의 자기대상갈망과 자기대상회피라는 코헛의 생각

은, 애착경험의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타인의 사랑과 지지를 보다 많이 획득하기 위해 그들의 애착반응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hyperactivating) 애착불안이 큰 사람과 주요타자와의 외상적 상호작용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애착욕구를 비활성화시키는(deactivating) 애착회피가 큰 사람을 낳게 된다는 가설(Brennan, Clark, & Shaver, 1998)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들로 미뤄 볼 때 애착과 자기대상욕구는 상관이 있을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는 경험적 연구(Banai, Mikulincer, & Shaver, 2005)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또 부적응적 자기애와 애착불안정과의 관계(Mallinkrodt & Wei, 2005; Otway & Vignoles, 2006; Smolewska & Dion, 2005), 자존감 조절의 문제와 불안정 애착의 관계(양지윤, 2006; McCormick & Kennedy, 1994)를 보여주는 연구들, 그리고 애착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친다(O'Brien et al., 2000)는 연구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뒷받침되어진다.

그런데 애착은 생애 초기에 최초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추후 인간관계의 원형을 이루며 자기조절능력과 관계가 있다(Silverman, 1998; Rholes et al., 2004)). 그리고 안정 애착의 내적 작동모형 형성은 응집적인 자기 형성과 정체감 확립의 선결요건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애착과 진로미결정, 애착과 자기대상욕구가 상관이 있으며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정체감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또 자아정체감은 자기대상욕구의 적절한 충족과 좌절의 결과로 발달하는 응집적 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애착과 자기대상욕구, 진로미결정은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삶의 커다란 전환기인 대학생시기에 애착의 작동모형이 활성화되어지며 활성화된 작동모형은 자기대상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추측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애착의 작동모형은 자기대상갈망 혹은 자기대상회피를 유발할 것이며 이중 자기대상회피는 포부와 이상 혹은 목표의 부재, 기술과 재능 연마의 실패를 가져와서 진로미결정을 초래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대상회피가 매개할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학교 상담에서 진로문제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진로상담의 목적은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올바른 직업 가치관의 확립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진로와 관련하여 내담자가 직면하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김충기, 2000). 이를 위해서는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진단 및 차별적 처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진로미결정자의 성격적 변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다룬 국내 대다수의 연구들은 성인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 않았고, 애착이나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는 자기대상욕구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코헛의 자기대상욕구와 애착,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활성화되는 성인 애착과 자기대상욕구가 진로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진로미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와의 상담관계 형성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상담목표 달성을 위해 내담자의 어떤 측면에 공감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 상담을 진행할 것인지, 상담자의 적절한 개입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애착과 자기대상욕구, 진로미결정은 서로 상관이 있을 것이다.

1-1.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클수록 자기대상갈망이나 자기대상회피가 클 것이다.

1-2.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클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을 것이다.

1-3. 자기대상회피가 클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을 것이다.

2.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대상욕구가 매개하는지, 매개한다면 부분 매개인지 완전 매개인지 알아본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설문지 회수 결과 자료가 일부 누락된 3사례를 제외한 30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평균 23.43세(SD=5.67)이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80명(26.2%), 여자가 225명(73.8%)이었다.

측정도구

친밀관계 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S)

브레난, 클라크와 셰이버(Brennan, Clark, & Shaver)가 1998년 당시까지 이 분야에서 나온

영어로 된 수많은 자기보고형 애착유형척도들의 문항을 수집하여 요인분석 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이들은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바르톨로뮤와 호로비츠(Bartholomew & Horowitz, 1991)가 제안한 두 차원(자기모형과 타인모형)과 유사한 두 차원(애착 회피와 애착 불안)을 발견하고 모든 애착 측정 도구들은 두 직교차원인 애착 불안(분리와 유기에 대한 두려움)과 애착 회피(친밀과 의존에 대한 두려움)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인의 애착을 측정하는 친밀관계경험척도(ECRS)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각각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를 측정하는 두 개의 18문항짜리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 척도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번안되어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형춘(2007)이 번안한 질문지가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고 있다고 여겨져 이를 사용하였다. 문형춘(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척도전체가 .87, 애착회피는 .90, 애착불안은 .89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가 .91, 애착회피는 .88, 애착불안은 .93 이었다.

한국형 자기대상욕구 질문지(Korean Selfobject Need Inventory; K-SONI)

김미자(2006)가 바나이 등(Banai et. al. 2005)의 자기대상욕구 질문지를 바탕으로 문항을 첨삭하여 타당화한 것으로 자기대상갈망과 자기대상회피의 두 척도 밑에 반영, 이상화1, 이상화2, 제2의 나, 반영회피, 이상화회피, 제2의 나 회피의 일곱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 자기대상갈망 16문항, 자기대상회피 19문항, 총 35문항이다. 전체 척

도의 신뢰도(α)는 .83, 갈망 .87, 회피 .88, 반영 .70, 이상화1 .82, 이상화2 .67, 제2의 나 .72, 반영회피 .80, 이상화회피 .74, 제2의 나 회피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3, .87, .85, .72, .78, .64, .74, .72, .72, .83 이었다.

직업미결정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 II)

진로미결정과 관련하여 탁진국과 이기학(2003)이 국내 대학생 표집을 이용하여 국내 문화에 적합하게 개발한 척도로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 장애의 5개 소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탁진국 등(2003)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α)는 .87,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 순서대로 각각 .83, .88, .72, .62, .6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가 .89, 하위척도들은 각각 .90, .90, .82, .85, .72 였다.

절차 및 분석방법

피험자들에게 친밀관계경험척도(ECRS), 자기대상욕구 질문지(K-SONI), 직업미결정척도(K-C II)를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애착불안과 회피, 자기대상갈망과 회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애착과 자기대상회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SPSS Windows 15.0 프로그램과 AMOS 4.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애착과 자기대상욕구, 진로미결정의 상관관계

표 1에 애착과 자기대상욕구, 진로미결정의 상관계수가 표시되어 있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애착과 자기대상욕구, 진로미결정은 상관이 유의미했는데 애착전체(불안정애착)는 자기대상욕구와 상당한 정도의 정적 상관($r=.598, p<.01$)을 보였으며 진로미결정과도 정적 상관($r=.319, p<.01$)을 보였다. 또 자기대상욕구는 진로미결정과 다소 낮은 정적 상관($r=.298, p<.01$)을 보였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자기대상갈망($r=.465, p<.01$), 자기대상회피($r=.396, p<.01$), 진로미결정($r=.327, p<.01$) 모두와 상관이 있었으며 애착회피도 자기대상갈망($r=.268, p<.01$), 자기대상회피

($r=.264, p<.01$), 진로미결정($r=.203, p<.01$)과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애착 회피는 애착 불안에 비해 자기대상갈망, 자기대상회피 및 진로미결정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또 자기대상회피는 진로미결정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r=.340, p<.01$), 자기대상갈망은 진로미결정과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r=.063, p>.05$).

위의 결과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애착과 자기대상욕구 하위요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애착과 그 하위요인들인 애착불안, 애착회피는 자기대상욕구와 그 하위요인들 전체와 상관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애착 회피보다는 애착 불안이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 애착은 자기

표 1. 애착과 자기대상욕구, 진로미결정의 상관계수

		애 착			자기대상욕구		
		애착불안	애착회피	애착전체	대상갈망	대상회피	욕구전체
자기 대상 욕구	대상갈망	.465**	.268**	.447**			
	대상회피	.396**	.264**	.394**			
	욕구전체	.612**	.380**	.598**			
진로미결정		.327**	.203**	.319**	.063	.340**	.298**

* $p<.05$ ** $p<.01$

표 2. 애착과 자기대상욕구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

	반영	자 기 대 상 욕 구									
		이상화 1	이상화 2	제2의 나	갈망 전체	반영 회피	이상화 회피	제2의 나 회피	회피 전체	자기대상 욕구전체	
애 착	애착 불안	.478**	.367**	.283**	.305**	.465**	.304**	.458**	.175**	.396**	.612**
	애착 회피	.243**	.162**	.232**	.221**	.268**	.194**	.282**	.145*	.264**	.380**
	애착 전체	.444**	.333**	.299**	.310**	.447**	.299**	.447**	.185**	.394**	.598**

* $p<.05$ ** $p<.01$

대상갈망이나 자기대상회피보다는 전체 자기대상욕구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고 자기대상회피보다는 자기대상갈망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대상욕구 하위요인들 중 제2의나 회피와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애착이 불안정 할수록 자기대상욕구가 커져서 자기대상갈망과 자기대상회피 모두 증가하나 특히 자기대상갈망이 더 크게 증가함을 보여

준다. 또 자기대상욕구나 자기대상갈망의 증가는 애착 회피 보다는 애착불안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표 3에서 애착과 진로미결정간 상관을 보면 애착불안은 진로미결정 전체와 진로미결정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있었다. 또 애착회피는 직업정보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외적 장애와 상관을 나타내었고 전체(불안

표 3. 애착과 진로미결정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

		진로미결정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 부족	외적 장애	진로미결정 전체
애 착	애착 불안	.171**	.218**	.386**	.138	.217**	.327**
	애착 회피	.125*	.053	.283**	.024	.221**	.203**
	애착 전체	.175**	.181**	.394**	.111	.246	.319**

* $p < .05$ ** $p < .01$

표 4. 자기대상욕구와 진로미결정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

		진로미결정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 장애	진로미결정 전체
자 기 대 상 욕 구	반영	.140*	.009	.211**	-.050	.101	.129*
	이상화 1	.077	-.013	.095	-.068	.045	.048
	이상화 2	.067	-.034	.105	-.145*	.091	.034
	제2의 나	.017	-.084	.153**	-.117*	-.045	-.016
	갈망 전체	.096	-.038	.179**	-.115*	.057	.063
	반영 회피	.126*	.227**	.467**	.155*	.170**	.326**
	이상화 회피	.148**	.223**	.253**	.123**	.222**	.281**
	제2의나 회피	.085	.156**	.103	.154**	.185**	.191**
	회피 전체	.153**	.259**	.347**	.188**	.248**	.340**
	자기대상 욕구 전체	.180**	.169**	.381**	.063	.225**	.298**

* $p < .05$ ** $p < .01$

정)애착은 필요성 인식 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이는 애착이 불안정하여서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증가할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진로미결정에 애착 불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4에는 자기대상욕구와 진로미결정의 상관이 표시되어있다. 전체 자기대상욕구는 진로미결정과 상당한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 요인들 중 필요성 인식 부족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대상회피가 자기대상욕구 전체나 자기대상갈망보다 진로미결정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고 자기대상 갈망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자기대상회피의 하위요인인 반영 회피와 이상화 회피는 진로미결정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자기대상갈망은 우유부단($r=.168, p<.01$)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자기대상갈망의 하

위요인인 이상화1은 진로미결정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이상화2는 필요성 인식 부족($r=-.133, p<.05$)과는 역상관을 보였으나 그 밖의 다른 하위 요인들과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반영은 진로미결정 전체($r=.129, p<.05$) 및 정보부족 ($r=.140, p<.05$), 우유부단($r=.211, p<.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들 중 우유부단은 자기대상갈망과 자기대상회피 모두와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명확성부족과 필요성 인식 부족은 자기대상회피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애착, 자기대상욕구,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대한 모형검증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대상욕구가 매개하는지에 관한 가설적 모형은 그림 1과 그림 2에 있는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이다. 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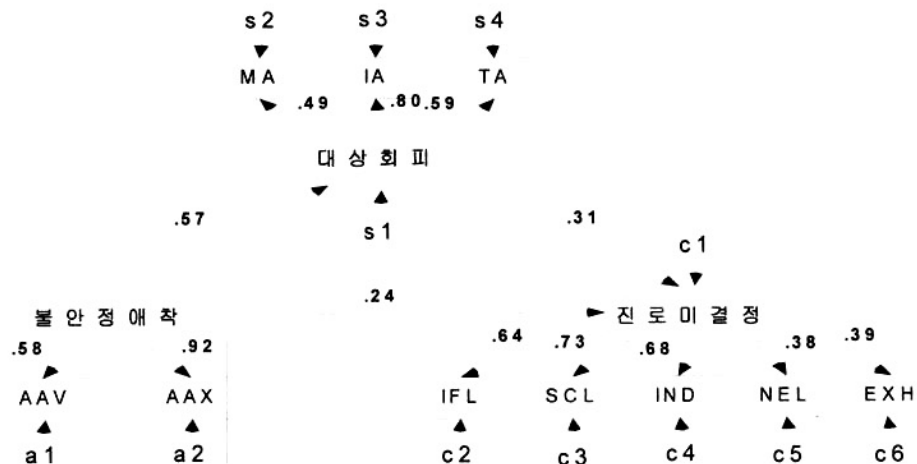


그림 1.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기대상욕구의 부분 매개모형(표준화계수)
 AAV: 애착회피, AAX: 애착불안, MA: 반영회피, IA: 이상화회피, TA: 제2의나 회피,
 IFL: 직업정보부족, SCL: 자기명확성부족, IND: 우유부단, NEL: 필요성인식부족, EXH: 외적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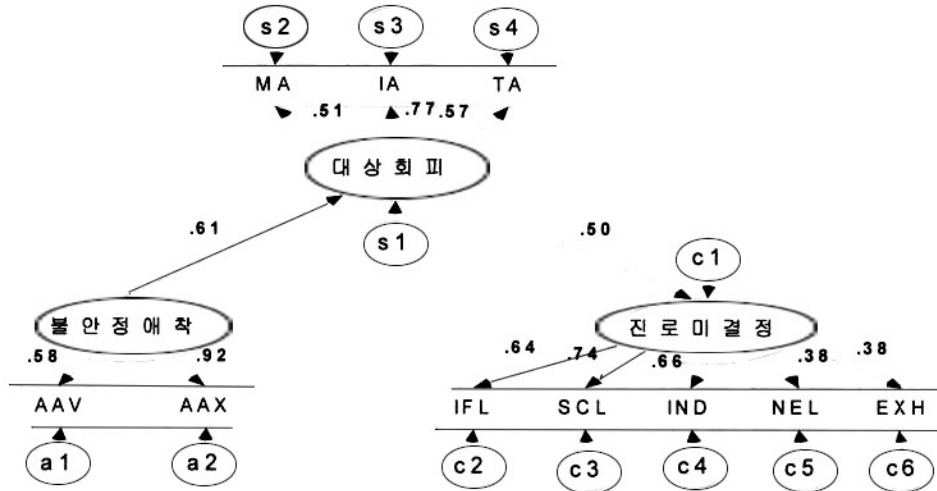


그림 2.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기대상욕구의 완전 매개모형(표준화계수)
 AAV: 애착회피, AAX: 애착불안, MA: 반영회피, IA: 이상화회피, TA: 제2의나 회피,
 IFL: 직업정보부족, SCL: 자기명확성부족, IND: 우유부단, NEL: 필요성인식부족, EXH: 외적장애

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검증 절차는 김계수(2001), 홍세희(2006), 웨스턴과 고어(Weston & Gore, 2006), 맥컬럼, 베게너, 우키노와 파브리가(MacCallum, Wegener, Uchino, & Fabrigar, 1993)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χ^2 검증은 너무 엄격하여 모형의 적합성이 너무 쉽게 기각되며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영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는 경우, 표본 크기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

명성을 고려하여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는 TLI와 RMSEA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LI와 RMSEA를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부가적으로 CFI 값도 제시하였고 RMSEA의 90%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홍세희(2006)는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라고 볼 수 있고,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이하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CFI .95, RMSEA는 .06을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본

표 5. 자기대상회피의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분매개모형	129.34	32	.980	.988	.100	(.082, .118)
완전매개모형	135.75	33	.979	.987	.101	(.084, .119)

크기가 500이하이고 모형이 복잡하면 기준을 덜 엄격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Weston et. al. 2006). 표 5와 그림 1, 그림 2에 두 모형의 검증 결과를 제시 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모형 모두 좋은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으나 부분매개 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하였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에 있어서도 부분매개 모형이 보다 나은 적합도를 보였고 부분매개 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분매개 모형이보다 간명하면서도 자료를 잘 설명해줌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료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부분매개모형(그림 1)의 추정치를 통해 자기대상회피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의 절차는 우선 애착->대상회피의 경로(경로a)와 대상회피->진로미결정의 경로(경로b)가 유의한지를 평가한다. 다음으로 매개효과 ab가 유의한지를 평가한다. 경로 a와 b 및 경로 ab가 유의하다면 매개효과가 있으므로 매개모형을 지지할 수 있다(홍세희, 2006).

검증 결과 경로a($C.R = 5.32 > t = 1.96$)와 경로b($C.R = 2.857 > t = 1.9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매개효과 ab의 검증은 다음의 식에 의해 이뤄졌다.

$$Z_{ab} = ab / \text{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주. a: 경로 a의 비표준화 계수, b: 경로 b의 비표준화 계수, SQRT: 제곱근, SE_a : a의 표준 오차, SE_b : b의 표준오차.

$a = 0.277, SE_a = 0.052, b = 0.391, SE_b = 0.137, Z_{ab} = 2.48$ 로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

과 ab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로a와 경로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매개효과 ab가 유의하므로 매개모형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대상회피의 회피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기는 하지만 간명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RMSEA의 적합도가 좋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를 보다 확실히 검증해보기 위해서는 부스트랩절차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Shrout & Bolger, 2006). 표준적 절차에 의한 적합도 지수들은 표집오차와 비표집오차 모두를 포함하나 부스트랩 절차를 통한 적합도 지수들은 비표집오차를 제거함으로써 주어진 표본의 적합도 지수들이 단지 표집오차만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에 제시되어있듯이 모든 경로에서 부스트랩 방법에 의한 효과와 표집 수가 크지 않을 때 그것의 영향을 교정한(Bias corrected) 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각각의 경로들이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불안정 애착이 자기대상회피를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자기대상회피의 매개 없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모두 유의미하여 부분매개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데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분매개모형에서 간명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RMSEA의 적합도가 좋지 않으므로 수정지수를 통해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수정모형에서는 수정지수와 측정변수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공분산을 설정하게 된다. 반영 회피와 우유부단은 자기에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김은석, 2006) 개념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인들

표 6. 자기대상회피의 부분매개모형에 관한 표준방법과 부스트랩 방법에 의한 효과검증 결과

경로	효과		95% 신뢰구간(하한, 상한)			부스트랩	
	크기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표준정규치 (Standard normal)	부스트랩 퍼센타일 (Bootstrap percentile)	편파교정치 (Bias corrected)	평균 (M)	표준편차 (SD)
a	.277	.052	(.175, .379)	(.175, .478)	(.176, .483)	.292	.077
b	.391	.137	(.123, .660)	(.141, .747)	(.088, .695)	.403	.154
c	.152	.059	(.036, .268)	(.005, .321)	(.021, .330)	.145	.077
aXb	.108			(.039, .247)	(.039, .247)	.118	.053

a: 애착 → 자기대상회피, b: 자기대상회피 → 진로미결정, c: 애착 → 진로미결정
 aXb: 애착 → 자기대상회피 → 진로미결정 (간접효과)

이며, 실제적으로도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수정지수도 10보다 커서, 이들의 오차항들 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새로운 추정치를 추정한 후의 수정된 부분매개모형의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으며 부분매개모형 모형과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7에, 부스트랩을 이용한 검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χ^2 값 차이는 52.29, $df = 2$ 로 $a=.005$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는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정 모형은 RMSEA가 .076으로 괜찮은 적합도



그림 3.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기대상욕구의 부분 매개 수정모형(표준화계수)
 AAV: 애착회피, AAX: 애착불안, MA: 반영회피, IA: 이상화회피, TA: 제2의나 회피,
 IFL: 직업정보부족, SCL: 자기명확성부족, IND: 우유부단, NEL: 필요성인식부족, EXH: 외적장애

표 7. 자기대상욕구 부분매개 모형과 수정 후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LO, HO)
부분매개모형	129.343	32	.980	.988	.100	(.082, .118)
수정 모형	85.616	31	.988	.993	.076	(.057, .096)

표 8. 자기대상회피의 부분매개 수정모형에 관한 표준방법과 부스트랩 방법에 의한 효과검증 결과

경로	효과의 크기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95% 신뢰구간(하한, 상한)			부스트랩	
			표준정규치 (Standard normal)	부스트랩 백분위수 (Bootstrap percentile)	편파교정치 (Bias corrected)	평균 (M)	표준편차 (SD)
a	.238	.047	(.146, .330)	(.148, .426)	(.151, .434)	.247	.066
b	.139	.055	(.031, .247)	(.037, .276)	(.036, .276)	.144	.064
c	.059	.022	(.016, .102)	(.010, .128)	(.010, .137)	.060	.030
a×b	.033			(.009, .070)	(.009, .070)	.036	.017

a: 애착 → 자기대상회피, b: 자기대상회피 → 진로미결정, c: 애착 → 진로미결정

a×b: 애착→ 자기대상회피 → 진로미결정 (간접효과)

(reasonable fit)로 향상되었으며 TLI와 CFI도 향상되었다. 또 부스트랩방법에 의한 효과검증에서도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애착과 자기대상욕구, 진로미결정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또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자기대상욕구를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여 검

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과 자기대상욕구 및 진로미결정은 서로 상관이 있었다. 우선, 애착과 자기대상욕구의 관계에서 높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특징 지워지는 애착불안정은, 자기대상욕구를 증가시켜서 자기대상갈망과 자기대상회피 모두 커지나 자기대상갈망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애착불안정, 특히 애착 불안은 애착 회피보다 자기대상갈망 및 자기대상회피, 진로미결정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정보 불충분,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필요성 인식 부족 등의 모든 하위 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설1-1과 1-2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는 모

든 심리적인 어려움은 불안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것과 연관되며 애착불안이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가치나 관계 상대방으로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Brennan et al., 1998; Lopez et al., 2000; Mallinkrodt, 2000; Pietromonaco, & Feldman-Barrett, 2000)와 일치한다. 또 부적응적 자기애가 애착불안과 보다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Dickinson & Pincus, 2003; Mallinkrodt et al., 2005; Orway et al. 2006; Wei, Mallinkrodt, Larson, & Zakailic, 2005; Smolewska et al., 2005)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이 자신을 인정하고 달래주며 안정감을 제공할 자기대상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돌봄이나 관계 상대방으로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이 자기대상을 회피하게도 함으로써 우유부단을 초래하며, 자신의 욕구나 목표,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지니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동기와 포부를 저해함을 뜻한다. 또 애착불안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필수적인 환경에 대한 적극적 탐색과 숙달, 사회적 지적 유능감의 발달을 저해한다(Kenny, 1994; Lopez, 1992)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 이성 및 또래와의 안정애착으로 인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업의 선택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진로포부가 크고 진로결정수준을 높게 한다는 연구결과들(최은실, 2001; O'Brien et al., 2000; Vignoli et al., 2005)과도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기대상욕구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전체 자기대상욕구는 진로미결정과 상당한 상관을 보였고 필요성 인식 부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대상갈망은 진로미결정과 상

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하위요인 중 우유부단과만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또 자기대상갈망의 하위요인 중 반영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정보부족 및 우유부단과 이상화²는 필요성 인식 부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기에적 성향이 우유부단과 상관이 있으며 이상화 욕구는 목표 설정 및 추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로탐색 및 추구의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기대상회피 및 그 하위요인들은 진로미결정전체 및 거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기대상회피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능과 기술을 연마하여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기대상갈망과 자기대상회피 모두 진로미결정 하위요인 중 우유부단과 상관이 있고 자기대상회피가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 정보 부족과도 상관이 있음은 대상에 대한 양가감정이 존재하며 이 양가감정이 자신과 세계에 대한 탐색과 인식을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설1-3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결과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대상회피가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이론과 자기심리학에서 생의 변천기나 외상적 경험 시기 동안 애착의 작동모형과 자기대상욕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진다는 주장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주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며 대학 시기는 진로선택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전환기라는 점에서 의존과 지지를 제공해줄 타자의 역할이 부각되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애착의 작동모형이 활성화 되어 지는바 애

착이 불안정 할수록 자기대상갈망이나 자기대상회피도 강해지며 자기대상회피가 강해지면 이는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탐색된 정보를 토대로 선택하는 것, 또 부모의 반대나 여건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책임 있는 선택과 주장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이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진로미결정 요인들 중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이 높게 나타난 경우 성격적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격적 변인들 중 내담자의 애착상태와 자기대상욕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상담에의 함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미결정자의 애착이 불안정할 것임을 고려할 때 상담자는 안정된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일차적으로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내담자가 상담 관계를 안전기지로 활용하면서 자신과 세계에 대해 폭넓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둘째, 대상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양가감정이 내담자의 일반적인 대인관계와 상담자와의 관계 및 상담에도 작용하고 있는지, 진로 결정을 포함한 일상생활 에도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이 일상의 작은 일부부터 시작하여 점차 자신의 장기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의 강점과 약점, 흥미, 적성 등을 분명히 자각하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지닐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반영, 이상화, 제2의 나 등의 자기대상욕구의 회피

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바 우선 각각의 내담자에게 있어 어떤 자기대상욕구가 주로 회피되는지를 살펴보고 회피할 수밖에 없는 내담자의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고 회피하려는 마음에 공감해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 이면에는 자기대상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과도한 자기대상욕구로부터 놓여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내담자에게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를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 자기대상회피의 결과가 내담자의 진로미결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진로를 탐색,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담자의 내면세계에 대한 상담자의 공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상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자기대상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감 해주면서 적절한 좌절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변형적 내면화를 통해 내담자가 적절한 대상과 진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넷째, 자기대상욕구나 자기대상회피가 클 경우 이는 변형적 내면화에 의한 응집적 자기가 형성되지 않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상담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다뤄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외부의 지지와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대인성장 집단이나 지지적 리더가 이끄는 집단에 참여토록 권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자기대상욕구와 애착,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변인들과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진로상담에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는 데 의의가 있다. 또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을 경험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모두 자기보고형 질문지들을 사용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갖는다. 애착이나 자기대상욕구는 상당 부분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착에 관한 자기보고질문지가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애착 패턴을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하며 특히 행동 관찰이나 암묵적 점화 기법과 같은 다른 측정치들과 함께 쓰이면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의 많은 부분을 드러낼 수 있다는 연구(Shaver & Mikulincer, 2002)도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AAI와 같은 반 구조화된 면접법이나 사례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 부모나 동료 등 중요한 타인들의 보고를 통해 평정하는 방법 등의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자기대상욕구에 관한 보다 정교한 측정방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여 애착불안정과 자기대상욕구,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알아 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와의 초기 애착을 측정하여 성인애착, 자기대상욕구나 진로미결정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에 기초하여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기대상회피를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론에는 반증과 수정 가능성이 상존

하며 모형을 설정할 때 대안적 등가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MacCallum et. al., 1993)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애착과 자기대상회피의 위치를 바꾼 대안모형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그리고 수정 모형의 경우에는 다른 표집에 재적용 시켜서 확인 할 필요가 있다(Weston et. al. 2006). 마지막으로, 위 변인들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종단 연구나 반복 연구가 시행된다면 진로관련 행동과 애착, 자기대상욕구의 관계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01).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미자 (2006). 한국판 자기대상욕구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미발표 논문.
- 김영근 (2005). 심리적 독립과 애착 및 상호존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석 (2006).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 (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형춘 (2007). 내담자 성인애착 특성에 따른 내담자 상담자의 내현적 대인반응과 회기성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희 (2007).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

- 울, 강박증과 진로 미결정과의 관계: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 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지윤 (2006). 애착 유형, 자존감, 자기침묵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인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심 (2007).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존감 및 진로 장벽의 구조 모형 검증: 우수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 (2003). 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선 (200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숙 (2004).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수경 (1995). 애착, 심리적 독립성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옥현 (2006).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영 (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6). 상담심리연구의 최근 동향과 연구방법론. 2006년 한국상담심리학회 동계학술연수 자료.
- 황혜자, 조수진 (2006). 애착이론과 그 영향에 대한 고찰.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42(1), 151-171.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Banai, E., Mikulincer M., & Shaver P. (2005). "Selfobject" Needs in Kohut's Self Psychology: Links With Attachment, Self-Cohesion, Affect Regulation, and Adjustment. *Psychoanalytic Psychology*, 22(2), 224-260.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46-76) . New York: Guilford Press.
- Dick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 188-207.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avighurst, R. J. (1968).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The Gerontologist*.
- Kenny, M. E. (1994). Quality and correlates of parental attach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1(10), 39-46.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opez, F. G. (1992). Family dynamics and late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2, 251-283.
- Lopez, F. G., & Andrews, S. (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5), 508-511.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1.
- Lopez, F. G., & Gover, M. R. (1993). Self-report measures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separation-individuation: A selective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560-569.
- MacCallum, R. C., Wegener, D. T., Uchino, B. N., & Fabrigar, L. R. (1993). The problem of equivalent models in applications of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185-199.
- Mallinkrodt, B. & Wei, M. (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58-367.
- McCo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O'Brien, K. M., Friedmana, S. M., Tiptonb,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a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01-315.
- Otway, L. J. & Vignoles, V. L. (2006). Narcissism and Childhood Recollections: A Quantitative Test of Psychoanalytic Predi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 104-116.
- Pietromonaco, P. R., & Feldman-Barrett, L. (2000). The internal working models concept: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elf in relation to other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55-175.
- Rholes W. S., & Simpson J. A. (2004).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Robbins S., & Patton M. (1985). Self-Psychology and Career Development: Construction of the Superiority and Goal Instability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2), 221-231.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3), 340-358.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4). What Do Self-Report Attachment Measures Assess?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pp.17-54). New York: Guilford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lverman D. K.(1998). The Tie That Binds: Affect Regulation, attachment, and Psychoanalysis. *Psychoanalytic Psychology*, 15(2), 187-212.
- Smolewska, K. & Dion, K. L. (2005). Narcissism and Adult Attachment: A Multivariate Approach. *Self and Identity*, 4, 59-68.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okar M., Withrow R., Hall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Volume 50, Issue 1, 3-19.
- Vignoli, E., Croity-Belz, E., Chapeland, V., Fillipis, A., & Garcia, M. (2005). Career exploration in adolescents: The role of anxiety, attachment, parenting sty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153-168.
- Wei, M., Mallinckrodt, B., Larson, L. M., & Zakai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Depressive Symptoms, and Validation From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68-377.
- Weston R., & Gore Jr. P. A. (2006) A Brief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5), 719-751.
- 원고접수일 : 2008. 06. 04.
수정원고접수일 : 2008. 09. 26.
게재결정일 : 2008. 09. 30.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Indecision, Attachment, and Selfobject Need

Mi Ja Kim

Nam 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indecision, attachment, and selfobject need. Three hundred and five college students of Seoul and Kyung-gi d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and they carried out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ECR), Korean Selfobject Need Inventory(K-SONI), and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K-C II). The result indicates that selfobject need,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are correlated, especially showing stronger relationship with attachment anxiety than with attachment avoidance. Also the avoidance of selfobject correlates with almost all subordinate factors of career indecision and in contrast the subordinate factors of the hunger for selfobject correlate with only a few subordinate factors of career indecision. Moreover both the hunger for selfobject and the avoidance of selfobject correlate with the indetermination factor of career indecision. The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the effect of attachment on career indecision was mediated by the avoidance of selfobject. Finally the implication of the present findings i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past and future research.

Key words : selfobject need, hunger for selfobject, avoidance of selfobject, attachment, career indecision